

“파탄난 서민경제 살려달라” 호소 “문화전당 등 현안 챙겨달라” 당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설 연휴기간 지역구의 바다 민심을 흠어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경기가 어려워 못살았는데 서민증세까지”라는 호소연과 “좀 더 잘 하라”는 지역민들의 질책을 주로 받았다 고 전했다.

특히 현 정부의 호남 소외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 현안인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보류와 호남선 KTX개통 대비책 마련 등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광주 북갑) 정책위의장은 “담배값과 연말정산 등 불공정한 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병완(광주 남) 의원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월급쟁이’들마저도 이제 힘들어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는데 특히 연말정산 환급액 결과를 놓고 ‘서민증세’에 대한 불만이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개호(담양·영광·함평·장성) 의원은 “어디를 가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며 “경제 사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나같이 말했다”고 지역민심을 전했다.

현 정부의 호남 소외에 대한 실망감과 지역 정치권의 지역 현안 챙기기를 주문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터미널 등지에서 귀향객 맞이 인

사를 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 박혜자(광주 서구 갑) 광주시장 위원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과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 등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호남소외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은 아득법 개정안 보류로 문화전당 개관에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 등 서민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한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호남 소외가 심한 편이지만, 올해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광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와 관이 협력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질적인 계파간 갈등 해소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승용(여수) 최고위원은 “이완구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다”며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친노·비노 등 계파싸움 하지 말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어 달라”는 당부도 많이 들었다. 요즘 지지도가 많이 올랐더라며 성원을 보내준 분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도 “친노와 비노로 갈려 서로 집안 싸움을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남(고흥·보성)의원은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특히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단합된 힘을 잘 끌고가 정권교체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격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이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야말로 단결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박주선(광주 동) 의원은 “이완구 총리 임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인 새누리당 이정현(순천·곡성) 의원은 야당의원과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전국 어디서나 결국 먹고사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고 민심을 전했다 뒤 “특히 호남은 박지원 의원의 대표 좌절 탓인지 정치 무관심이 컸다. 호남의 큰 정치, 당권·대권 등에서의 공백과 허탈감이 정치적 침묵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민심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많았고, 이를 정치권과 단체장이 경부선 성공 사례를 분석해 잘 대처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 프로필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비서관서 장관으로 파격 기용

현직 청와대 비서관(1급)에서 차관급을 거치지 않고 파격적으로 장관으로 내정된 대학교수 출신의 통일·외교 전문가.

서울 출신으로 경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 추진단 위

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분야 공약 및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탰다.

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비서관급 이상 가운데 유일한 통일 분야 전문가로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역설할 때나 3월 독일 국빈 방문에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할 때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1) ▲경희고 ▲연세대 정치외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본부 실무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

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회봉사단 부단장 ▲제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 지내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親朴)계 의원.

지난 대선 때 여권의 열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서울에서 시당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수도권 선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선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회

에서는 기획재정부·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18대 국회 기재위원 시절에는 좌석이 박 대통령 옆자리였다. 고(故) 유지승 전 민한당 총재의 외아들로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에 전락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며, 19대 총선에선 야권의 중량급 인사인 민주당 천정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부인 함경호 씨와 1남.

▲서울(60)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서울시당위원장 ▲대변인 ▲정책위 수석 부의장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해양법 전문 변호사 출신 3선 의원

해양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세월호참사 발생 이후부터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1순위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왔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계)계 중진 의원.

2004년 17대 총선 때 부산 서구에서 처음 당선돼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친이명박)계가 주도한 공천에서 탈락하자 다른

친박계 의원들과 함께 탈당,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하는 등 정치적 굴곡도 겪었다.

2011년 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작년부터는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부인 이태숙씨와 사이에 1남 2녀. ▲부산(56) ▲서울대 법대 ▲뉴욕대 법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과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합격(25회) ▲17, 18, 19대 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경제관료·농협금융 CEO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

임종룡 보성 출신 금융위원장 후보자

보성이 고향인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돼 화려하게 관가에 복귀했다.

임 후보자는 신제운 금융위원장과 같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을 시작해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금융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이론과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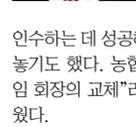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탁월한 정책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이명박정부의 초창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은 후 글로벌 금융 불안을 이겨낼 발판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9년 11월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회의 도중에 ‘병상에 계신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았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가 부친의 임종을 놓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전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농협중앙회와의 갈등 끝에 사임한



상황에서 2013년 6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직을 맡은 후 농협금융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후보자의 재직 시절 농협은행이 예금, 대출, 펀드, 퇴직연금 등에서 성장세 1위를 차지했고 농협생명도 신규보험료에서 삼성생명을 제쳤다. 또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해 NH투자증권에 증권업계 1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농협금융그룹 내부에서는 “NH의 최대 리스크는 임 회장의 교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보성(56)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영국 재정참사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완구 총리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이완구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한 뒤 위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